

환절기 한(육)우의 사양관리



박성재

축산기술연구소 육종번식과

“

이제는 조석으로 서늘한 9월을 맞아 기온도 정상적인 적온으로 돌아오고 그동안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로한 소를 빨리 회복시키고 계절적으로 자라지 못했던 비육우는 보상성장의 효과가 있는 사양방법과 번식우에 있어서도 고온다습에 인한 영향으로 발정이 잘 오지 않던 암소는 영양상태를 개선해서 정상적으로 발정이 오도록 하며, 분만간격을 단축하여, 1년에 한 마리의 송아지를 낳을 수 있도록 하여야 번식농가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다.

”

1. 머리말

올 여름은 예년에 없던 더위 및 폭우가 찾아와 7~8월중에는 이상 기후현상을 보였고 한편으로는 엘니뇨현상으로 의해 많은 가축의 폐사가 일어나고 농작물의 침수 및 성장장애를 받았으며 국제곡물가의 상승으로 인한 사료값의 상승으로 인해 축산농가의 시름이 매우 컸다.

그러나 동물성단백질을 먹지 않고는 살수 없는 생활방식이므로 우리는 용기를 내어 보다 경제적이고 효과적으로 축산을 하여야 한다. 우리는 만약 축산을 포기하면 식량이 무기화 되어 우리의 생존에 크나큰 영향을 받는 것은 불보듯 뻔한 사실이다. 이러한 중요한 사명감을 지닌 우리는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분발하여야 한다.

한육우의 사육적온인 10℃~25℃를 벗어난 더위와 4주일 이상이나 계속된 장마는 많은 가축의 체식량의 감소는 물론 소 자체의 피로도 지속되었으며 이로 인해 면역수준의 감소로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다. 특히 비육우의 경우 증체가 되지 않아 경영 및 관리상으로도 많은 손해를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조석으로 서늘한 9월을

맞아 기온도 정상적인 적온으로 돌아오고 그동안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로한 소를 빨리 회복시키고 계절적으로 자라지 못했던 비육우는 보상성장의 효과가 있는 사양방법과 번식우에 있어서도 고온다습에 인한 영향으로 발정이 잘 오지 않던 암소는 영양상태를 개선해서 정상적으로 발정이 오도록 하며, 분만간격을 단축하여, 1년에 한 마리의 송아지를 낳을 수 있도록 하여야 번식농가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다.

2. 번식용 암소의 사양

우리나라는 극지방과는 달리 비교적 극한 더위와 추위가 없으므로 아직도 한우는 번식에는 계절적이지 않고 대부분이 연중 송아지 생산을 시도하고 있어 외국과 같이 봄 생산축이 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절생산이 아니므로, 환절기에 특별한 가축의 구분을 정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계절이 바뀌므로 인해 다소의 온도 및 습도의 변화가 있으므로 더 높은 가축의 생산력을 위해서 한우의 성장 단계별, 상태별로 구분하여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유리하다. 즉 송아지 상태, 육성우 상태에서 초임우 직전의 상태, 분만후의 상태 또는 포유

기상태 등으로 다양하여 환절기에 각 단계별 사양관리를 전체적으로 중요한 요점만을 설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번식용 암소를 크게 4가지로 구분해서 초임전 육성단계의 번식용 암소 임신초기 즉 임신부터 임신 6개월까지 임신말기 분만전 3개월간, 마지막으로 포유기의 암소로 구분해서 환절기 번식 및 사양관리 요령을 서술코자 한다.

① 초임전 육성단계의 암소 사양

한우 암소의 적정 번식시기는 생후 15~16개월령에 체중이 250~260kg이상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이보다 빠른 조기 임신은 어미소 자체의 성장정지와 적은 태아의 발생 및 난산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성장 및 포유 등에 필요한 많은 영양분이 공급될수 있도록 사양관리가 요구되며, 소의 영양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분만 후에도 어미소의 젖 부족이나 젖의 성분불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긴강한 송아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초임전 암소의 사양은 초임시기 선정, 분만시기 선정 및 포유 중 관리 등 포유중이나 포유 후 육성에 정상의 임신우보다는 적절한 영양수준을 높여야 하고 이유 후에 분만모우의 소화기관과 골격 등의 충분한 발달이 되도록 하고 번식에 알맞는 적정체중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울 여름 같이 무더위가 지속되는 동안 체식량의 감소로 자체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 보충이 불충분하였으므로 양질의 소화가능한 조사료를 급여하여, 감소되

〈표 1〉 초임전(체중 250-280kg, 14-15개월 전후) 종빈우의 영양소 요구량

체중(kg)	CP(kg)	TDN(kg)	Ca(g)	P(g)	Vat(100IU)
300	0.51	3.34	16.7	12.3	20
350	0.54	3.83	17.3	13.6	23
400	0.57	4.02	17.9	15.0	26

※ 한국표준한우사료규격기준

〈표 2〉 성빈우 및 임신우 영양소 요구량

체중(kg)	CP(kg)	TDN(kg)	Ca(g)	P(g)	Vat(1,000IU)
300	0.41	2.39	9.2	9.9	20
350	0.43	2.69	10.8	11.5	23
400	0.57	2.97	12.3	13.2	26

※ 한국표준한우사료규격기준

었던 체식량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면서 균형있는 체격의 발달 및 신속한 발정재귀가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가능한 한 체중의 2%정도의 양질의 건초를 급여하여 소화기관 중 1위의 발달과 골격이 잘 발달되도록 하여 좋은 어미소가 되도록 사양관리를 철저히 한다.

② 임신초기빈우의 사양

번식우는 송아지를 생산하고 한우의 종을 유지하는 한우사육의 기초축이다. 이러한 중요한 기초축은 사용기간이 길수록 경제적이며, 기초축에 투자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번식우의 경제적 이용을 위해서 좋은 번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사양해야 하며, 번식력 향상을 위해서는 좋은 영양상태로 유지하면서 사양하여야 한다.

만약 영양상태가 나쁘면 발정이 없는 경우나 미약발정이 오기도 하고 배란의 부조화로 적기에 임신이 되지않아 임신의 불량이 초래되며 이로 인해 송아지의 생산 부실 또는 자축의 분만간격이 연장되어 축산경영에 손해를 끼치게 된다.

따라서 임신초기의 영양소 요구량은 같은 체중에서 비교할 때 빈우의 육성단계보다 낮게 요구되지만 더위나 추위 등 환경에 따라 적정 섭취량이 떨어질 경우 소화가 용이한 양질의 건초와 영양소 부족량을 농후사료로 공급하여 좋은 영양상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방목하는 임신우의 경우 혹서로 인해 풀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해 조사료 공급이 부족했다면, 양질의 볏짚으로 조사료를 보충해주고 농후사료는 조사료의 부족한 양을 보충하면서, 체중에 알맞은 영양수준을 맞추어 공급한다.

대기온도가 점차 서늘한 사육온도에 알맞게 되면서 사료의 섭취량도 증대되는데, 초임한우의 경우 여름더위에 충분히 섭취하지 못했던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료수준을 정해야하고 임신우에서는 체력을 유지시키는 사양을 실시해야 한다.

임신초기부터 임신 6개월까지는 태아가 5kg정도인데 이때는 초임우가 아닌 한 현재중을 잘 유지하면 좋겠지만 특히 여름 더위로 많은 열량이 발산해서 체중의 손실이

있으면 이를 감안하여 사육을 실시하고 유지해야 하며, 만약 체중이 감소로 인해 태아가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건강한 송아지의 생산을 위해 모우의 영양수준의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적어도 체중의 손실이 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더위가 누그러졌으므로 가벼운 운동을 시켜 태아의 건강을 도와야 한다.

③ 임신말기 빈우 사양

임신말기에 있는 경산우는 임신 6개월까지 꾸준한 사양으로 일정 체중을 유지하여 왔으나, 다소 섭취량의 감소로 적정체중이 수준 이하로 떨어져 있으므로 조속히 수준 유지는 물론 임신말기 3개월간은 태아 체중의 급격한 증대를 고려해서 어미소의 식욕을 높이고 영양수준은 임신 초기보다 20~30%증대하여 급여하는 데 만약에 모우의 영양상태가 나쁘면 더 증량해 주어야 한다. 이 시기에 소의 영양상태는 임신 말기에 이르러 최고 점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영양관리와 정성을 들여야 한다.

그러나 너무 과비하면 체내 자아의 과다한 성장 및 분만모우의 운동부족으로 난산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해서 충분한 운동과 적당한 영양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여름에서 가을로 변하는 계절에는 여름 방목을 실시하였다면, 방목지의 초지로부터 광물질이나 비타민의 공급이 가능하지만 사사기로 바뀌는 동안 건초나 볏짚 등의 광물질이 부족한 조사료만 급여할

〈표 3〉 임신말기(분만전 2~3개월) 영양소 요구량

체중(kg)	CP(kg)	TDN(kg)	Ca(g)	P(g)	Vat(1,000U)
300	0.51	3.23	20.2	13.5	30
350	0.56	3.53	21.7	15.1	35
400	0.60	3.81	23.3	16.8	40

※ 한국표준한우사료급여기준

〈표 4〉 포유기의 영양소 요구량

체중(kg)	CP(kg)	TDN(kg)	Ca(g)	P(g)	Vat(100U)
300	0.62	3.73	17.1	13.8	65
350	0.66	4.01	19.4	15.4	75
400	0.71	4.29	20.9	17.1	86

※ 한국표준한우사료급여기준

〈표 5〉 볏짚과 야건초 및 야건초만 급여시의 급여량(예)

구 분	암소육성			임신초기			임신말기			포유기		
	체중(kg)	300	350	400	300	350	400	300	350	400	300	350
볏 짚	2.4	2.7	3.1	2.4	2.7	3.1	2.4	2.7	3.1	2.4	2.7	3.1
산 야 초	9.9	11.5	13.2	9.9	11.4	12.8	9.9	11.4	12.8	9.9	11.4	12.8
배합사료	2.8	3.1	3.3	1.4	1.4	1.5	2.7	2.8	2.9	3.6	3.7	3.7
야 건 초	4.5	5.3	6.0	4.9	5.5	6.1	4.9	5.5	6.1	4.9	5.5	6.1
배합사료	2.5	2.8	2.9	0.7	0.8	0.8	2.1	2.2	2.2	3.0	3.0	3.1

※ 한국표준한우사료급여기준

경우 특히 광물질 등에 대한 영양공급을 잘 고려하여 미네랄블록을 매달아서 영양의 부족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④ 포유우의 사양

포유중인 경우는 번식우에서 가장 영양소가 많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임신기보다 50%가 더 요구되는데 이는 어미소의 자체유지뿐 아니라 분만후 자궁의 회복 및 송아지 포유를 위한 비유에 소요되는 영양이 많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또한 포유기에 영양상태를 잘 관리하여 분만후 발정이 빨리 오도록 하여 다음 송아지 임신을 도와야 분만간격이 단축되며 자축의 생산비등이 감소하여 축주의 소득향상에 기여를 하게된다.

포유기간중 어미소의 영양부족

으로 비유량이 적으면, 송아지 성장률이 늦어지고 이유시 송아지 체중이 적어 송아지의 발육에 많은 지장을 주며 자축의 판매시 값을 잘 받을 수 없다.

더우기 여름 방목 또는 양질의 풀이 많은 곳에서 사육했다면, 가을은 점차 목초가 줄어들고 아울러 조사료의 질이 떨어지고 섭취량도 일시적으로 감퇴하기 때문에 농후사료나 사일리지, 야초 등을 보조사료로 급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볏짚과 산야초 또는 야건초 중심으로 사육시 각 사양단계별, 체중별, 일당증체량을 0.4kg 기준으로 할 때 급여량 예는 위의 〈표 5〉와 같다.

3. 송아지의 관리

송아지는 앞으로 번식우의 대체우로 또는 비육우의 밑소로 이용되



는 점을 고려할 때 송아지의 육성 관리는 중요하다.

송아지의 생산시기가 연중으로 분포되어 있어 생산시기에 따라 관리에 차이가 많다. 그러나 환절기 특히 가을에 생산된 송아지라면 송아지의 사육적온이 15℃~25℃이므로 갑작스런 기온저하가 예상되는 야간에는 적정온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셋바람을 막는 문단속 및 보온 조치를 하여 춥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송아지는 분만 30분에서 1시간 이내 초유포유를 유도하여 송아지가 초유로부터 면역항체(Immunoglobulin)를 많이 흡수하게 하고 특별히 소화기관중 반추위의 발육이 잘 되도록하여 건강한 송아지로 육성해야 한다.

여름철 장마로 우사바닥에 습기가 많은 경우 송아지의 소화장애를 주어 설사를 일으키므로 분만 전에는 분만상의 바닥을 소독하고, 깨끗한 육초를 깔아주어 바닥을 마르게 유지시켜야 한다. 또한 방목시나 어미소와 함께 있을 때 생후 3주 이내에 비를 맞은 청초를 먹으면 설사를 유발하므로 물기가 없는

상태로 급여를 하고, 만약에 양질의 청초라면 2~3일간 건조한 후에 급여하는 것이 송아지의 소화기관 발달에 좋다.

송아지는 생후 3주일 이상의 일령이 되면 개체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어미소의 포유량으로는 자축에게서 요구되는 영양분을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보조사료를 추가로 주어 영양분을 공급 해주어야 하고, 이때 급여하는 사료는 고품사료 형태가 소화기 발달을 위해서는 좋으며, 양질의 물과 건초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보조사료는 가능한 한 체중의 일정량을 여러번 나누어 급여하여 과식에 의한 설사를 막는 것이 이상

적이며, 나누어 줄 경우 섭취량도 증가한다.

그리고, 단백질 함량의 농후사료를 통풍이 되지 않는 창고에 보관할 경우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2주이내 사용하고 하루에 준 사료량이 사료통에 남아서 파리나 개미등 해충이 달려들지 않게 하고, 특히 가능하면, 먹는 양을 2~3회에 나누어 전부 먹을 수 있도록 사양하여야 섭취량도 증가하고 남은 사료의 비위생적 관리를 지양할 수 있다.

따라서 먹다남은 사료는 새로운 사료를 주기전에 닦아내어 변질된 사료를 주어 장염으로 인한 소화기 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위의 <표 6>은 이유후 송아지의 영양소 요구량이다.

같은 체중이라도 조단백질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영양면에서는 암소가 더 요구되며 다음으로 거세수소이고 일반 비거세수소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 비육우의 관리

최근 소값의 하락으로 축산농가의 애로점을 완벽하게 해결한 방법은 없지만 이럴 때 일수록 어려움

<표 6> 이유후 송아지의 영양소 요구량(일당중체 0.4kg 기준)

구 분	체중 (kg)	건물량 (kg)	CP (kg)	TDN (kg)	Ca (kg)	P (g)	Vat (1,000IU)
암 소	100	3.2	0.32	1.74	14.5	7.1	7
	150	3.0	0.37	2.16	16.2	8.4	10
	200	3.7	0.41	2.68	15.6	9.7	13
	250	4.4	0.47	2.91	16.1	11.0	17
거 세 수 소	100	2.4	0.32	1.62	15.5	7.3	7
	150	3.3	0.38	1.97	16.0	8.6	10
	200	4.1	0.42	2.45	16.6	10.0	13
	250	4.8	0.49	2.77	17.3	11.3	17

* 한국표준한우사료급여기준

을 극복하기 위한 남다른 노력을 기울려야 할 때이다. 국경없이 수입되어 수입육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식육소비 선호도를 고려하여 최소한의 경비로 경쟁력있는 비육우관리가 되어야 한다.

원래 이유한 송아지는 20℃전후가 적온이나 온도가 30℃이상이 되면 증체량, 채식량 그리고 사료 효율이 떨어진다.

한우의 경우도 30℃이상의 고온에서는 땀이 많이 나고 오줌도 많이 배설되어 자연히 체내 질소 축적률이 떨어지고 위내 온도상승으로 암모니아가 증가하여 질소의 체내 축적을 제한해서 지방조직이 감소되는 등 증체량의 저하와 함께 육질에서도 마블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출하 준비에 있는 소는 축사의 온도상승을 억제시키는 방법으로 그늘막이나 지붕에 물 뿌리기를 하여 온도조절을 해서 출하일정에 알맞은 증체 목표량을 이루도록 사육해야 한다.

이제 환절기를 맞아 큰 더위는 가셨지만, 소는 보상성장이 가능하므로 사료 섭취량을 늘리도록 하고, 출하에 알맞게 사양하고, 더위와 함께 이제 곧 기온이 떨어지면 역시 체온유지를 위한 영양분의 공급을 증대하여 단계별 영양수준을 맞추어 사료를 급여해야 한다.

① 비육밀소의 구입과 관리

비육밀소를 시장에서 구입할 때는 한우의 정상 발육을 판단할 수 있는 체중이나 체형의 외모, 혈통,

산차 등 최대한 많은 정보를 알아낸 다음 선발하는 방법이 최선이다.

최근에 구입 밀소는 대부분이 봄에 생산된 송아지로 볼 때 어미소나 송아지 자체도 지난여름 무더위로 성장보다는 약간 여위어 있으므로 체중보다 체형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밀소를 양질의 건초로써 1위 발달을 잘시키지 않고 농후사료만으로 보기만 좋도록 사육한 소는 나중에 비육의 효과가 부실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므로 밀소사육시의 정보를 잘 고려해야 한다.

② 비육밀소의 사양관리

소의 발육순서는 처음에 뇌가 발달하고 다음으로 뼈, 근육 그리고 지방의 순으로 발육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각각 조직이나 기관의 발육에는 최고에 도달하는 시기

가 따로 있다.

따라서 월령별로 보면 발육은 골격, 위장 등 내부장기로부터 시작해서 적육(살코기), 지육, 지방의 순으로 되어 있어 이같은 시기에 알맞은 사료를 급여하여 소의 최대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이 한우 고급육 생산기술의 방법이다.

비육우의 거세효과는 육질개선과 사양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거세시키는 빠를수록 좋으나, 시장에서 구입시 3~4개월령에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 거세방법도 무혈거세기 이용, 고무링법 및 외과적 방법이 있으나, 무혈거세기를 이용하는 것이 손쉬우며 환절기에는 기온이 더운 것보다 다소 서늘한 시기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거세에 따른 스트레스를 짧은 기간내 줄이는 것이 좋으며, 이를 위해서는 외과적인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표 7〉 비육우의 성장단계별 영양수준과 사료급여량

구 분		육 성 기		비 육 기		
		어유 66개월령	6~12개월	전기(13~18)	후기(19~24)	
영양수준 (%)	CP	18~19	14~16	12~13	11~12	
	TDN	70	68~70	71~72	72~73	
급여기준 (체중비%)	배합사료	2.0~2.5	1.2~1.5	1.7~1.8	1.8~2.0	
	조 사 료	생 초	3.0~5.0	6.0~8.0	3.0~5.0	-
		담근먹이	2.5~4.0	5.0~7.0	2.5~4.0	-
		목 건 초	1.2~1.2	1.2~1.5	1.0~1.2	0.5~0.8
		벧 질	0.8~1.0	1.1~1.5	0.7~1.1	0.4~0.6

※ 한우(표준영농교본)

〈표 8〉 한우의 발육표준(수소)

구 분	생 시	3개월령	4개월령	6개월령
체중(kg)	25.2	111.6	140.4	197.9
체고(cm)	67.2	83.6	90.7	101.5
체장(cm)	57.6	81.9	93.1	108.8
흉위(cm)	68.6	100.1	111.7	134.0

※ 한국표준한우사료급여기준

③ 비육우의 단계별 사양관리

번식우가 번식제절이 없이 연중 송아지를 생산하고 있듯이 비육우도 연중 비육을 실시하고 있어 환절기에 해당되는 별도의 사양단계는 없다. 그러므로 비육우의 단계별 사양관리를 요약하고자 한다.

◎ 육성기

육성기는 비육우가 생후 12개월령까지로 체중이 대략 300Kg내외이며, 이 기간은 체조직으로 내장 등 소화기관과 골격이 활발하게 발달하는 기간으로 조사료를 자유스럽게 충분히 급여하고 농후사료는 체중의 1.5~1.7%로 제한급여 사양한다.

지난 여름 더위로 자라지 못했다면 추위가 오기 전까지 일당 증체량이 0.7kg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하루에 농후사료 섭취량을 1일 1회에서 1일 2회로 늘려주고 감소되었던 섭취량을 서서히 올린다.

육성기의 조사료의 역할은 어린 3개월령의 송아지라면 반추위 중 1~2위는 큰소의 50% 수준으로 10개월령이 되면 전체위의 80% 수준이 되는데 이같은 반추위의 발육은 딱딱한 거친 조사료의 자극으로 제1위내 미생물이 잘 발달하고 위벽이 자극을 받아 잘 발달하게 된다.

육성우의 경우 청초 또는 담근먹이보다 양질의 조사료가 위 발달에 더 효과적이다. 특히 송아지의 경우 양질의 건초를 충분히 주어 반추위가 아직도 전체량의 50%수준밖에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소화기관을 잘 발달시켜 튼튼한 소를 육

성해야 한다.

비육전기는 생후 13개월령 이후부터 18개월령까지로 연초에 구입한 중소는 계속해서 조사료를 자유채식하고 농후사료는 체중의 2%로 제한해서 급여하여야 한다.

더위로 섭취량이 줄었다면 급여횟수를 늘려 섭취요구량을 전량 급여하도록 노력하고 이 시기는 비육월령이 늘어나면서 농후사료의 섭취량이 조사료보다 많아지고, 더위로 증체가 없었다면 보상성장이 되는 시기며, 일당증체목표는 0.9~1.0kg으로 하여 과비보다 근육의 안정감과 앞으로 장기비육에 기초가 되는 체형을 만들어 나간다.

또한 체중이 증가하면서 운동이 재발되므로 발굽이 크게 자라고 있어 발굽도 깎아주어야 섭취량이 줄어들지 않는다.

◎ 비육후기

비육후기는 19개월령부터 출하까지로 대략 24개월령, 혹은 30개월까지 사육을 하는 데 이때가 되면 출하체중도 570~600kg이상의 정도가 되는데 더위로 인한 증체가 지연된 경우는 계획보다 출하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육후기는 근육내 지방의 침착으로 육질이 개선되는 시기로서 육질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비육후기에는 지방개선을 위한 보리와 열량사료를 많이 급여하여 근내지방도(지방교잡, 마블링, 상강도)가 높도록 사양하여 도체등급 1등급 및 육량이 많은 소가 되도록 해야 농가소득에 더 많은 기여를 하게된다.

5. 맺는 말

지금까지 환절기 한우의 사양관리 및 영양수준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환절기에서 고려할 중요한 사항은 자축이나 모축의 온도관리, 조사료의 관리, 갑작스런 온, 습도 관리 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한우를 관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우의 생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므로 생리에 맞게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 하겠다.

예년에 없던 더위와 장마로 한우의 성장 및 관리에 많은 애로점이 있었으며 사료값 인상으로 축산농가에 많은 부담요인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위에 기록된 기초적인 참고 자료를 숙지하면 환절기 한우의 사양 및 복지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번식우와 비육우의 사양단계에 따라 중요한 것은 일정 섭취량의 유지를 사양목표에 도달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이로 인해 비육우에서도 1등급 출현으로 소득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환절기는 더위에 대한 적응과 추위에 대비한 사양을 같이 신경을 써야 하는 기간이므로 추위에 대비한 영양상태와 특히 겨울철엔 신선한 공기의 환기는 온도 못지않게 중요한 점을 고려해서 소의 위생환경상태를 잘 유지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㉞

〈필자연락처 : 0331-290-1626〉